

미국 이동통신 시장, 2000년
에 260억 달러 전망

미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규모가 지난해 1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행한 보고서 "The 1995 US Cellular Market Forecast"에 따르면, 미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지난해 51%나 증가, 2,420만명을 기록했고, 90년대 말까지는 6,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BIS는 미국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성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개인 사용자들은 비상시에 통신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 미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은 개인 가입자들을 위한 차등화된 요금 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BIS에 따르면, 미국의 20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는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며, 앞으로 3~5년후에는 미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IBM 워크스테이션, 병렬처리
형 시스템 부문 통합

IBM은 자사의 "RS/6000" 워크스테이션 부문과 병렬처리형 시

스템 부문을 통합시킬 예정이다.

IBM의 이번 조치는 RS/6000 부문 책임자 William Filip씨가 은퇴하는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 RS/6000과 "Power Parallel"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IBM은 두 부문의 통합 계획을 이번 주 공식 발표하는데, 새 부문의 책임자에는 병렬처리형 시스템 부문 책임자로 근무하던 Irving Wladawsky-Berger씨가 임명된다.

IBM의 RS/6000 워크스테이션 부문은 약 20억 달러의 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병렬처리형 시스템 부문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4억 달러에 달했다. 병렬처리형 시스템 업계의 시장 규모는 연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연 60%의 비율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외국 SW 업체 R & D
투자 촉진

중국 정부 산하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의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 부문 책임자 Fusheng Ji씨는 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중국과 협력하면 연구개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Ji씨는 중국의 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 및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Oracle Corp.가 Beijing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IBM이나 AT & T와 같은 주요선진국 업체들은 수익의 7~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수익의 25~30%를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엔지니어들을 활용하면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Ji씨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100만명 이상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Motorola, "Dragonball" 칩
발표

Motorola 산하 High Performance Embedded Systems Division은 가전제품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된 염가형 프로세서 "M68328"을 발표했다. "Dragonball" 이라고 알려진 이 프로세서는 전자수첩, 사진, 휴대형 비디오 게임기, 휴대형 개인 통신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칩을 사용해 휴대형 개인통신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Motorola에 따르면, DragonBall 칩에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콘트롤러가 내장돼 있고, 세 단계의 절전 모드 기능이

포함돼 있다.

Motorola는 이 칩의 시제품을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4/4분기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1만개 기준 15달러 미만의 가격에 시판된다.

Seagate, 2.1-GB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개발

Seagate Technology는 업계 최대의 용량을 갖춘 ATA/IDE 인터페이스 방식 디스크 드라이브 "Medalist 2140"과 "Medalist 1640"을 개발, 금년 3/4분기부터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Seagate에 따르면, 이들 두 제품은 탁상용 컴퓨터 시스템에 사용되도록 설계됐으며,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처리에 적합하다.

Medalist 2140은 2.1-GB의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Medalist 1640의 데이터 용량은 1.6-GB다.

Intel, 휴대형 PC용 Pentium 프로세서 발표

Intel은 휴대형 PC에 사용되도록 개발된 90MHz Pentium 프로세서를 발표하고, 1천개 기준 429달러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Intel에 따르면, 이 프로세서는 종전까지 공급되던 휴대형 PC용 칩보다 속도가 20% 더 빠르며, 2.9볼트의 전압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탁상용 PC에 사용되는 유사

한 사양의 제품보다 전력 소모량은 30% 더 적다. Intel은 이미 29개 업체가 이 칩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금년 말까지는 대부분의 주요 PC 업체들의 노트북 PC 주력 기종이 Pentium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M, PCMCIA 메모리 카드 신제품 발표

3M은 휴대형 PC 사용자들을 위한 PCMCIA 메모리 카드 "40MB Flash Disk"와 "170MB Hard Drive"를 개발, 1,949달러와 599달러에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3M에 따르면, 이들은 PCMCIA Type II 또는 Type III 확장 슬롯을 갖춘 휴대형 PC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PC Card ATA의 표준 사양에도 부합한다. 3M은 다양한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공급하고 있는데, 1.8MB 모델은 249달러, 2.5MB 모델은 399달러, 5MB 모델은 449달러, 10MB 모델은 719달러, 20MB 모델은 1,239달러에 시판된다.

대만, GSM방식 이동통신망 구축 완료

대만의 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 (DGT)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방식 디지털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의 1단계 작업을 완료, 6월말 또는 7월 초부터 20만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Taipei, Taichung, Kaoshiung 등 세 도시에서 제공되는데, 캐나다 Northern Telecom의 장비가 투입된다.

대만 정부는 1억달러 상당의 GSM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지난해 9월 Northern Telecom과 체결했다.

대만은 1997년 말까지 2단계 및 3단계 프로젝트를 완료, 서비스 지역에 15개 도시를 추가하고 59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 계획이다.

Infoimaging, 팩스 압축 전송 SW 개발

Infoimaging Technologies, 사는 30페이지 분량의 팩스 문서를 1페이지로 압축, 팩스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PC용 소프트웨어 "3D Fax"를 개발, 기능에 따라 99~199달러에 시판한다.

3D Fax는 이 소프트웨어와 팩스/모뎀을 갖춘 PC 들간에 사용될 수 있다. 한편, 보통 팩스기에 3D Fax를 통해 압축된문서를 전송하면 해독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스캐너를 통해 3D Fax를 갖춘 PC에 입력하면 원형대로 문서를

복구할 수 있다.

Meridin, 네트워크용 CD-ROM 드라이브 관리 SW 개발

Meridian Data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CD-ROM드라이브의 사용과 관리를 쉽게 해주는 PC용 소프트웨어 "CD Net Plus 6.0"을 개발, 사용자 10명 기준 895달러에 시판한다. CD Net Plus 6.0은 네트워크 사용자와 관리자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네트워크상의 CD-ROM 드라이브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Windows 인터페이스를 업계 최초로 갖춘 제품이다.

Bell Atlantic, 비디오 통신망에 SDV기술 채택

Bell Atlantic은 이 회사의 비디오 통신망에 광섬유-동축케이블 혼합 시스템 대신 Switched Digital Video(SDV) 기술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ell Atlantic은 광섬유-동축케이블 혼합시스템을 사용하는 비디오 통신망의 구축을 허가해 줄 것을 작년 6월 Federal Communications (FCC)에 신청했다가 이를 최근 취소했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광섬유-동축케이블 혼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가구당 비용은 1992년 350달러에서 작년에는 약

800달러로 낮아졌다. SDV 기술을 사용해 비디오 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인 업체로는 Bell Atlantic 이외에 US West, SBC Communications 등이 있다. 한편 Pacific Telesis Group과 Ameritech는 광섬유-동축케이블 혼합시스템을 채택했으며, Nynex와 Bell South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Bell Atlantic이 SDV 기술을 채택한 것은 다른 전화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으로는 Broad Band Technologies사에 혜택을 줄 전망이다.

Broad Band Technologies는 Bell Atlantic 이 뉴저지 및 버지니아주에 구축할 예정인 비디오 통신망에 투입될 장비를 향후 5년에 걸쳐 공급하기로 하고 1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Bell Atlantic 은 BroadBand의 주식 100만주를 700만달러에 매입할 것에 지난 4월 합의했었다.

BroadBand의 SDV 장비는 SBC Communications가 텍사스주 Richardson에 구축하는 비디오 통신망에도 투입된다.

HP, 의료업계용 휴대형 통신 시스템 개발

Hewlett-Packard (HP)는 의사들이 환자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무선 수신할 수 있게 해주는

"Palmvue System"을 개발, 의료계에 공급한다.

이 시스템은 병원에 설치된 HP 모니터를 통해 수집되는 진료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다가 무선 모뎀을 통해 이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HP Vectra" PC와 의사들이 휴대하는 초소형 컴퓨터 5대로 구성돼 있으며, 2만 5,000달러에 공급된다.

HP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워싱턴주 Redmond에 있는 Data Critical Corp.의 기술을 라이선스해 개발됐다.

NVIDIA, PC용 멀티미디어 콘트롤러 칩 발표

Nvidia사는 입체 그래픽스, 비디오 특수 효과, 동화상 비디오 및 고품질 음향기능을 모두 갖춘 멀티미디어 콘트롤러 칩 "NV1"을 발표했다.

이 칩은 SGS-Thomson과의 1년여에 걸친 공동개발 작업을 통해 개발됐는데, SGS-Thomson 또한 이 칩을 "STG2000"이라는 이름으로 시판 할 계획이다.

SGS-Thomson은 DRAM과 함께 사용되는 버전을 RAMDAC과 함께 55달러에 대량 공급할 예정이며, Nvidia는 VRAM을 사용하는 버전을 70달러에 시판할 계획이다.

Nvidia의 칩은 멀티미디어 아답터 개발업체 Diamond Multi-

imedia Systems사가 채택하기로 했다.

NEC, TEAC : 6배속 CD-ROM 드라이브 공급

NEC사와 TAEC America사가 6배속 CD-ROM 드라이브 시장에 진출한다.

NEC는 초당 900-Kbytes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Multispin 6x" 드라이브를 최근 발표했는데, 내장형 모델 "Multispin 6xi"는 499달러에 판매되며, 외장형 모델 "Multispin Xe"는 599달러에 시판된다. 한편 TAEC은 Western Digital의 "ATAPI" 콘트롤러 칩을 사용하는 6배속 드라이브를 6월부터 549달러에 시판할 계획이다. TEAC의 드라이브 또한 초당 900-Kbytes의 데이터를 처리한다.

일본 PC시장, 지난해 38.5% 성장

일본 PC 업계의 제품 출고량이 지난해 38.5% 증가, 4백 47만 9천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Electronic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PC 업계의 매출액은 1993년보다 27.9% 증가한 1조 1,400억엔에 달했고, 주

변기기 부문을 포함시킬 경우 매출 실적은 1조 6,400억엔에 달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 113만 1천대의 PC를 수출했는데, 이는 3,792억엔에 해당했다.

일본의 지난해 PC 수출 실적은 물량으로는 1993년 보다 32.5%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4.3% 증가했다.

한편, 일본이 지난해 수출한 PC의 98%는 노트북 PC였으며, 총수출 물량의 63%가 북미주 시장에 공급됐다.

도시바, 64비트 RISC MPU 개발

일본 NEC와 도시바는 클럭속도 200MHZ의 고속동작을 실현한 64비트 RISC(명령어 축소형 세트컴퓨터) MPU(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각각 개발했다.

일본 「일간공업신문」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모두 미국 밍스테크놀로지사와 공동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64비트 RISC칩에 비해 처리 성능이 25% 향상됐다.

공정기술은 NEC가 0.35미크론 상보성금속산화막 반도체(COMS), 도시바가 0.3미크론 CMOS 기술을 채용했다.

샘플가격은 NEC 제품이 18만엔, 도시바 제품은 30만엔이며 양

산시기는 올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NEC, AT&T와 ASIC 공동개발 착수

일본 NEC와 미국의 AT&T사는 0.2미크론 공정을 사용한 주문형 ASIC)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최근들어 0.25미크론급 기술에 대한 전망이 밝아짐에 따라 양사는 ASIC의 상품화를 위한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고 일본 「전파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NEC는 지난 90년 AT&T와 반도체기술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한 이래 0.35미크론급 상보성금속산화막(CMOS) 공정기술 및 0.25미크론급 공정기술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판매회사를 합작설립했다. 또 지난 1월에는 0.35 미크론급 공정기술을 이용한 게이트어레이를 NEC가 상품화했다.

이와함께 NEC는 세계적인 반도체개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미국·유럽지역에 있는 테크놀로지센터의 기술진을 금년중으로 현재의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오는 98년에는 해외에서의 기획·설계기술자를 250명으로 증강할 계획이다.